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11

1995

제1권 제5호 통권5호

사단법인 대한가금처리협회

발행 및 편집인 : 김 홍 국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52-6(남도빌딩 6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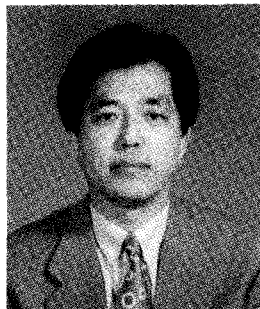
TEL.(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02)263-3598, 3599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전문화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자

계육산업의 발전 방향은 계육의 가공 부문 활성화에 있다. 가공 부문의 현실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는 우리의 계육 시장이 WTO체제하에 이미 개방되었고, 빗발치는 국내·외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계육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 누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업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훨씬 넘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문제제기의 소리가 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진정우리것을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 원 주

(주)화인코리아 대표이사
본협회 이사

주어진 제반 여건과 요인이 일시에 개선 또는 완화 될 수 없다고 하여 단순하게 수치개념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비교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다. 국내 업계간 소모적이고 비능률적인 경쟁이나 대립보다는 확대된 세계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의 시대에 동참해야 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경쟁력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물론 수치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임은 주지의 현실이나 그렇다고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서 원가만 낮춘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뤄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화, 차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90년대이후 계육산업에서 삼계탕 관련 산업의 비중이 날로 높아져가고 역할이 증대 되고 있으며, 삼계탕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단순한 닭고기라는 개념과 인식에서 벗어나 삼계탕 고유의 고품질의 맛과 육질에 차별된 기호성을 두고 있다는 사실로서 이미 차별화가 실현된 것이다. 이처럼 품질의 차별화로 삼계산업의 전문화는 그 수준이 정착, 대중화 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의 욕구는 계속적으로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계육개발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또는 계

육 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난관과 어려움은 의외로 많다.

수요의 계절적 제한으로 인한 계열체제의 운용은 일반 육계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이나 92년부터 꾸준히 개발 추진되어온 가공기술의 접목으로 질 좋은 삼계탕 제품을 생산하여 상황에 맞는 형태의 수출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계육산업 발전방향의 실증적 제시로서 주시해야 할 사항이며 계육산업의 가공산업화 측면과 수출산업으로의 발전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매우 낙관적이다. 수년간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여건조성과 적절한 지원대책 그리고 문제되어온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의 보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대안이 주어진다면 확신컨대 우리 계육의 세계화는 조기에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가 극복해야 할 기본자세는 품질향상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생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계열화 체계 운용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화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육의 가격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는 불리한 요인으로 높은 사료비 부담과 낮은 생산성은 물론 불안정한 각종 원자재의 유통 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일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의 개선과 인식전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이제 그 가치를 올린 전문화는 우수한 사양가의 선발과 시설의 보완으로 전문 수출 농가 육성은 물론 제품의 규격화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상호 안정적인 사업 투자 및 가격안정 제도를 현실성있게 운영하게 되어 건전한 경영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유 브랜드의 도입으로 전문화되고 차별화를 이루려는 일부 업체들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음은 지극히 환영할 일로 당연한 추세로서 이에 따른 꾸준한 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력의 향상은 더욱 탄탄한 계육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